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의 「실사구시설(實事求是說)」 재고찰

서근식*

차례

- I. 머리말
- II. 실사구시(實事求是) 개념 재고찰
- III. 실사구시를 통한 학문관
- IV. 학문방법으로서의 고증학(考證學)
- V. 맺음말

국문초록

실사구시는 실제 일에 있어서 옳음을 구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에 대해 다시 고찰해 봄으로써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였다. 이러한 실사구시가 한송절충론과 관련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청(淸)나라의 고증학과 같은 것이다.

추사의 학문관이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추사는 실사구시라는 학문방법론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하학(下學)·상달(上達)과 박학(博學)·독행(篤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점은 추사의 학문이 고증학과 깊게 연관됨을 보여주고 있다.

* 강남대학교 학술연구교수

학문방법으로서 추사는 고증학을 내세운다. 고증학에서 추사는 한(漢)나라의 훈고학을 중시했고 그 가운데 정현(鄭玄)의 주석에 대해 신뢰를 보냈다. 또, 고증학의 방법으로서 추사는 금석학을 내세우는데 그 가운데 「진흥이비고(眞興二碑攷)」에서 북한산순수비를 발견하게 되는 과정을 소개 하고 있다. 「진흥이비고」를 자세히 보면 본래는 무학대사의 비석이었다가 추사의 손을 거쳐 진흥왕의 순수비로 되었다는 기록되어 있다. 이는 실제 있는 일에서 옳음을 구한다(實事求是) 정신과 꼭 들어맞는 것이다.

주제어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 실사구시(實事求是), 고증학(考證學), 조선후기 실학(實學), 한송절충론(漢宋折衷論), 훈고학(訓詁學)

I. 머리말

추사 김정희(秋史 金正喜, 1786~1856)¹⁾는 19세기를 대표할 수 있는 서예가이자 금석학자이고 서화가이다. 이런 김정희를 왜 사상가로서 살펴 보아야 하는가? 이 말은 추사를 사상가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그렇다라고 대답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추사는 경학(經學)은 물론이고 당시 불교에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백파 공선(白坡 巨璇, 1767~1852)과 논변을 펼친 적도 있으며, 무엇 보다고 실사구시(實事求是)라고 하는 학문방법론을 통해서 그의 사상을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잘 드러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사는 서예가이자 금석학자, 서

1) 本官은 慶州, 字는 元春, 號는 秋史·阮堂·禮堂·詩庵·老果·農丈人·天竺古先生 등 매우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화가이기도 하지만 사상가로서도 뚜렷한 업적을 남겼다. 추사의 저작은 추사가 젊었을 때 기록한 글은 2번이나 불태웠다고 하는데, 현재에는 『완당선생전집(阮堂先生全集)』과 『완당전집(阮堂全集)』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다.²⁾ 번역본으로는 『국역 완당전집』(전4책)이 있으며, 『추사집(秋史集)』이 있다.³⁾ 그러나 추사의 『문집』은 예전부터 추사 자신의 저술이 아니라고 하는 문장들이 많이 있었다.⁴⁾ 이에 대해서 본 논문에서는 인용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도록 하겠다.

추사에 관한 출생이나 평생 동안 해왔던 일들은 여러 책들⁵⁾이 있으므로 그것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여기서는 추사의 실사구시에 대한 기존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에 대해 살펴보겠다. 추사의 실사구시에 관한 학위논문으로는 이선경의 「완당 김정희의 실사구시 연구」(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가 있을 뿐이다. 이 논문은 1992년 당시까지의 추사의 실사구시설에 대한 평가를 적고 있으며, 그의 실사구시

2) 『阮堂先生全集』은 신성문화사에서 1972년 影印해 냈으며, 그 후 민족문화추진회에서 2003년 『(標點·影印)韓國文集叢刊』 301로 표점을 붙여 影印하였다. 그리고 2005년 과천문화원에서 『阮堂全集』(天·地·人)이라는 이름으로 『阮堂尺牘』이나 『阮堂集』 등 기존에 나와 있는 판본들을 모두 影印하여 출판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민족문화추진회에서 2003년 영인한 影印本을 판본으로 삼았다.

3) 번역본은 『국역 완당전집』(전4책)이라는 이름으로 민족문화추진회에서 1986년부터 1996년까지 편찬되었으며, 이것을 다시 솔출판사에서 1996년부터 1997년까지 복간하였다. 본 논문에서 참조한 것은 솔출판사에서 발간한 것이다. 그리고 『추사집』이라는 이름으로 최완수가 현암사에서 1976년 펴냈는데, 이를 2014년에 개정·증보하여 복간하였다.

4) 이 부분은 『국역 완당전집』에서 번역을 하면서 주석에서 이 글은 누구의 글과 비슷하다거나 혹은 같다고 표현되어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그냥 넘어가겠다.

5) 대표적인 저작으로 최완수, 『金秋史研究』, 지식산업사, 1976과 유홍준, 『완당평전』(전3책), 학고재, 2002와 정후수, 『추사 김정희 논고』, 한성대학교출판부, 2008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책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

설에 대해 자세하게 논하고 있다.⁶⁾ 그 이후 신창호의 「추사 김정희의 공부론 - 「인재설」과 「실사구시설」의 인간관과 학문관」(『동양고전연구』 제21집, 동양고전학회, 2004.12)과 안외순의 「추사 김정희와 실학사상의 관계에 관한 재고찰」(『동양고전연구』 제21집, 동양고전학회, 2004.12)과 김인규의 「추사 김정희의 학문관」(『온지논총』 제11집, 온지학회, 2004.12)과 신창호의 「추사 김정희의 ‘실사구시’ 교육관」(『한국교육사학』 제27권 1호, 한국교육사학회, 2005.04)과 이선경의 「추사 김정희 사상의 실사구시적 특성」(『한국철학논집』 제19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006.09)이 있다. 그리고 단행본으로 이선경의 「실사구시론의 새로운 지표 - 완당 김정희」(『한국실학사상사』, 심산, 2008)가 있다. 이선경, 신창호가 2편, 나머지는 1편씩이다. 이선경의 논문들은 그의 학위논문을 확장하거나 요약한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그의 학위논문을 보면 될 것이다. 그리고 김인규, 신창호, 안외순의 글은 동양고전학회에서 특집으로 발표한 논문들로서 크게는 이선경의 학위논문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다만 안외순의 논문은 과연 추사의 실사구시설이 조선후기 실학사상인가의 문제를 논하고 있으므로 특이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⁷⁾ 그리고 신창호가 『동양고전연구』에 발

6) 그러나 이 논문 8쪽에서 “그것은 철학적 근거로서 性善說을 바탕으로 하며, 正名을 추구하는 禮論으로 구현되는 것임을 살펴본다.”라고 하고 있고, 이후에 나온 논문(「추사 김정희 사상의 실사구시적 특성」, 한국철학논집』 제19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006.09, 361-384쪽)에서도 禮制와 正名이라는 제목을 3장 3절에서 그대로 달고 있다. 그러나 禮制와 正名은 荀子가 강조한 부분으로 보인다. 『荀子』를 보면 「禮論」편과 「正名」편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禮制와 正名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이선경은 너무 孟子를 강조하다 보니 秋史의 견해가 잘 드러나지 않는 형식으로 서술되었다. 오히려 위에서 인용한 부분을 빼고 서술하였으면 별 문제가 없는 문장으로 보인다.

7) 안외순은 그의 논문에서 과연 추사의 실사구시가 실학사상과 연결될 수 있는가와 추사를 조선후기 실학사상가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필자

표한 논문은 동양에서 공부하는 방법을 언급한 것이지 추사의 실사구시 자체를 연구했다고 보기 힘들다. 이 외에도 여러 논문들이 있지만 대부분 이선경의 학위논문을 정리했거나 기존의 의견들을 종합한 것이다.

먼저 ‘실학’이라는 개념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추사의 사상은 조선후기 실학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고, 안외순과 신창호가 ‘실학’ 개념부터 논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외순은 「추사 김정희와 실학사상의 관계에 관한 재고찰」에서 ‘실학’이란 불교나 도가의 학설이 허학(虛學)이라면 유학사상은 실학(實學)이라고 하며 『중용장구』의 시작하는 말⁸⁾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⁹⁾ 여기서 말하는 실학은 성리학을 말하는 것이지 조선후기 실학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안외순은 성리학에서의 ‘실학’ 개념과 조선후기 ‘실학’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 듯하다. 이에 비해 같이 발표된 신창호의 「추사 김정희의 공부론 - 「인재설」과 「실사구시설」의 인간관과 학문관」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학이라고 거론하는 조선 후기의 학문 경향은 성리학·도학의 이론화를 비판한 유학의 한 분파이며, 성리학에 대하여 연속성과 혁신성의 양 측면을 지니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¹⁰⁾라고 성리학과 조선후기 실학의 관계에서 성리학에서 말하는 ‘실학’과 조선후기 ‘실학’이 다른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동의하고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하도록 하겠다.

8) 『中庸章句』 朱子註. “子程子曰 不偏之謂中 不易之謂庸. 中者 天下之正道 庸者 天下之定理. 此篇 乃孔門傳授心法 子思恐其久而差也. 故筆之於書 以授孟子 其書始言一理 中散爲萬事 未復合爲一理 放之則彌六合 卷之則退藏於密 其味無窮 皆實學也. 善讀者 玩索而有得焉 則終身用之 有不能盡者矣.”

9) 안외순, 「추사 김정희와 실학사상의 관계에 관한 재고찰」 『동양고전연구』 제21집, 동양고전학회, 2004.12, 57쪽의 주)1을 참조.

10) 신창호, 「추사 김정희의 공부론 - 「인재설」과 「실사구시설」의 인간관과 학문관」 『동양고전연구』 제21집, 동양고전학회, 2004.12, 10쪽의 주)1.

실학은 성리학과는 다른 새로운 학문경향이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대두되어 오다가 요즘 성리학과 실학이 연속성을 갖는다는 글들이 발표되었다.¹¹⁾ 필자는 조선후기 실학사상이 상대적으로 실용성과 진보성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싶다. 그리고 안외순은 이우성의 학설¹²⁾을 소개하면서 이우성의 글은 구체적인 논거가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추사가 조선후기 실학자라고 말하기 힘들다고 하고 있다.¹³⁾ 이선경은 이에 대해 이우성의 의견만을 소개하고 추사가 조선후기 실학자라고 말하기 힘들다는 안외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¹⁴⁾ 필자도 마찬가지로 생각이다.¹⁵⁾ 또, 안외순은 이우성과 동시대의 사람인 박종홍, 전해중, 이을호 등의 학설은 소개하지 않고 이우성의 의견만을 소

11) 한영우 외, 『다시 실학이란 무엇인가』, 푸른역사, 2007 참조.

12) 이우성은 조선후기 실학을 세 분류로 분류하였다. 1. 星湖 李瀾을 대종으로 삼으면서 토지정책·행정기구·기타 제도상의 개혁에 주력하는 ‘經世致用學派’, 2. 燕巖 朴趾源을 필두로 상공업의 유통 및 생산기구, 일반 기술면의 발전을 목표로 지향했던 ‘利用厚生學派’, 3. 秋史 金正喜에 이르러 일가를 이루면서 經書·典故·金石 등의 考證學에 주력하였던 ‘實事求是學派’. 자세한 내용은 이우성, 「18세기 서울의 도시적 樣相 : 燕巖一派-利用厚生學派의 성립배경」, 『鄉土서울』 제17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63.07, 8쪽을 참조.

13) 안외순, 「추사 김정희와 실학사상의 관계에 관한 재고찰」, 『동양고전연구』 제21집, 동양고전학회, 2004.12, 62~63쪽을 참조.

14) 이선경, 「추사 김정희 사상의 실사구시적 특성」, 『한국철학논집』 제19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006.09, 364~365쪽을 참조.

15) 『한국실학사상사』에서도 실학을 1기 經世致用學派(18세기 전반~후반), 2기 利用厚生學派(18세기 후반), 3기 實事求是學派(19세기 전반)로 나누어 보고 있다. 이 글은 안외순의 논문보다 뒤에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도 『한국실학사상사』의 이러한 주장에 동의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철학사연구회 엮음, 『한국실학사상사』, 심산, 2008, 26~28쪽을 참조. 그렇지만 이 책에서는 주로 畿湖南人 학자와 老論 北學派 등의 실학사상가에 대해서는 서술하고 있지만 少論 학자인 保晚齋 徐命膺(1716~1787), 石泉 申緯(1760~1828) 등의 실학사상가에 대해서는 서술하고 있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개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설령 안외순의 주장이 옳다고 하여도 박종홍, 전해중, 이을호 등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언급해야지만 진정한 비판이 된다.

이 논문 2장에서는 실사구시 개념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이고, 3장에서는 실사구시를 통해 추사가 어떻게 학문을 하려고 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마지막 4장에서는 추사의 학문방법은 최종적으로 고증학(考證學)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밝히도록 하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추사의 실사구시의 개념부터 살펴보자.

II. 실사구시(實事求是) 개념 재고찰

우리는 현재까지 ‘실사구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¹⁶⁾ 그러나 그 말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사용하는 사람을 드물다. 이 말은 본래 양득중(梁得中, 1668~1742)이 “지난번 경연(經筵)에서 대할 때에 신이 근일 허위의 폐단을 양달(仰達)하였습니다만 곧 ‘실사구시’의 네 글자가 폐단을 구하는 요결(要訣)이 되었습니다.”¹⁷⁾라고 ‘실사구시’라는 말을 처음 사용

16) ‘실사구시’라는 개념에 대해, 임형택은 그의 책이름을 『실사구시의 한국학』이라고 달고 있지만 김정희에 관한 글은 찾아볼 수 없다. 필자의 『서문』의 끝부분에서 “다시 말하면 ‘실사구시’라는 개념으로 형성된 풍부한 의미를 되새겨, 세기전환이 문명의 전환 혹은 몰락으로 다가온 오늘의 현실을 실사구시로 대응하자는 그런 취지이다.”(『실사구시의 한국학』, 창작과비평사, 2000, 6쪽)라고 함으로써 실사구시를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면 ‘실사구시’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에도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17) 『德村集』 卷1 「疏」 <辭掌令疏(己酉)> 4左. “頃日筵對時 臣以近日虛僞之弊仰達 而仍以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의 실사구시는 허위풍조를 배격하고 성실한 자세로 돌아간다고 하는 뜻으로 수양론의 의미가 있지 학문방법론으로서의 실사구시는 아니다. 이외에도 연천 홍석주(淵泉 洪奭周, 1774~1842), 간재 전우(良齋 田愚, 1841~1922)가 실사구시를 주장하였다.¹⁸⁾ 그렇다면 추사의 경우는 어떠한가? 추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한서(漢書)』 『하간헌왕전(河間獻王傳)』에 이르기를, “실제 있는 일에서 옳음을 구한다.[實事求是]”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학문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道)이다. 만약 실제 있는 사실에 의거하지 않고 다만 공소(空疏)한 기교만으로 방편을 삼는다거나 그 옳음을 구하지 않으면서 다만 선입견을 위주로 한다면, 성현(聖賢)의 도(道)에 배치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¹⁹⁾

추사는 「실사구시설(實事求是說)」의 처음부터 실사구시가 학문방법론임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다. 여기서도 안외순은 ‘학문에는 실사(實事)와 구시(求是)가 모두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안외순의 주장은 학문방법론으로서의 ‘실사구시’는 ‘실사(實事)’와 ‘구시(求是)’가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즉, 학문의 방법은 실사구시라는 하나가 아니라 실사(實事)와 구시(求是)라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²⁰⁾ 그러나 이

實事求是四字 爲救弊之要訣.”

18) 이선경, 「완당 김정희의 실사구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12~15쪽을 참조.

19) 『阮堂先生全集』 卷1 「說」 <實事求是說> 26右. “漢書河間獻王傳云 實事求是 此語乃學問最要之道. 若不實以事 而但以空疎之術爲便 不求其是 而但以先入之言爲主 其于聖賢之道 未有不背而馳者矣.”

20) 안외순, 「추사 김정희와 실학사상의 관계에 관한 재고찰」 『동양고전연구』 제21집, 동양고전학회, 2004.12, 66쪽을 참조.

러한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안외순도 위의 인용문을 똑같이 인용하고 있는데, 분명히 “실사구시라는 이 말은”이라고 되어 있고, 「실사구시설」 끝 부분에 “널리 배우고 독실(篤實)하게 실천하면서 ‘실제 있는 일에서 옳음을 구한다.[實事求是]’는 한마디 말만을 행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²¹⁾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도 한 마디 말이라고 했지 두 가지라고 하지 않고 옳음을 알아야 한다. 즉, 추사는 실사구시를 하나로 보았지 안외순처럼 둘로 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추사는 여기서 학문의 도(道)란 실제 있는 일에서 옳음을 구하는 ‘실사구시’이지 공소(空疏)한 기교나 먼저 들은 선입관을 중요시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실제에서 벗어난 것은 성현(聖賢)의 도(道)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추사에게 있어서 학문의 도는 ‘실사구시’이고 학문의 목표는 ‘성현이 되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학문의 도과 학문의 목표에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추사는 진(晉)나라 때의 노장사상과 불교를 들고 있다. 추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진(晉)나라 사람들이 노자(老子)·장자(莊子)의 허무(虛無)의 학설을 강론 하면서부터 배우기를 게을리 하여 속이 텅 비고 엉성한 사람들을 만들어 내면서 학술은 일변(一變)하였고, 불교가 크게 유행하게 되면서부터 선(禪)을 중심으로 깨달음에 이른다는 지리한 것으로 흘러, 연구하고 묻을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면서 학술은 또 한 번 일변(一變)하였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만 ‘실제 있는 일에서 옳음을 구한다.[實事求是]’는 한마디 말과 모두가 서로 반대되었기 때문이다.²²⁾

21) 『阮堂先生全集』 卷1 「說」 <實事求是說> 26左. “博學篤行 專主實事求是 一語行之可矣.”

22) 『阮堂先生全集』 卷1 「說」 <實事求是說> 26右. “自晉人講老莊虛無之學 便于惰學空疎之人 而學術一變 至佛道大行而禪機所悟 至流于支離 不可究詰之境 而學術又一變 此無他

추사는 노장과 불교는 허무한 학설이나 선(禪)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진실 된 학문이 될 수 없다고 한다. 특히 노장은 진실 된 학문에서 일변(一變)하였는데, 불교는 다시 연구하거나 물을 수도 없게 되면서부터 또 한 번 일변(一變)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라고 한다. 이것은 왜 그러한가? 추사는 ‘실제 있는 일에서 옳음을 구한다.[實事求是]’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가 노장사상에서 말하는 것이나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실제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것을 주장하는 것은 ‘실제 있는 일에서 옳음을 구한다.[實事求是]’에 걸맞지 않다. 그렇다면 송(宋)나라와 명(明)나라 때의 학문은 어떠한가?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송·명대(宋·明代)의 리학(理學) 역시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추사는 송·명대(宋·明代)의 학문 가운데 성리학(性理學)은 비판하지 않고 양명학(陽明學)만을 비판한다. 추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양송시대(兩宋時代)의 유학자들은 도학(道學)을 천명하였는데, 성리(性理) 등의 일에 있어서 정밀하게 연구하여 말하였으니 실로 옛 사람들이 미처 드러내지 못한 것을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 오직 육·왕(陸·王) 등의 학파(學派)²³⁾가 공허(空虛)한 것을 되풀이하여 유학을 불교에 끌어들이는 것이니 이는 불교를 유학에 끌어들이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이다.²⁴⁾

이는 송·명대 리학(理學) 전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양명학만을 부

與實事求是是一語 盡相反而已。”

23) 陸九淵과 王守仁을 이르는 것으로 陽明學을 뜻한다.

24) 『阮堂先生全集』 卷1 「說」 <實事求是說> 26右. “兩宋儒者 闡明道學 于性理等事 精而言之 實發古人所未發. 惟陸王等派 又蹈空虛 引儒入釋 更甚于引釋入儒矣.”

정한 것으로 당시의 시대상이 반영된 것이다. 당시는 성리학을 정학(正學)으로 여기던 시대였다.²⁵⁾ 「실사구시설」이 31세 때 지어진 것을 보면 그가 연경(燕京)에서 돌아와 한참 뜻을 세우던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추사도 시대상황은 어쩔 수 없었다. 추사는 주자학을 정학으로 여기는 시대분위기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에 있는 노론(老論)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²⁶⁾ 그렇지만 송·명학 가운데 퇴계 이황(退溪 李滉, 1501~1570)이래로 비판받던 양명학(陽明學)은 비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 따라서 추사는 송·명학 가운데 양명학만을 비판하고 주자학을 긍정한 것이다.

이러한 추사의 논리는 한송절충론(漢宋折衷論)²⁷⁾으로 이어진다. 추사는 「실사구시설」 끝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학문하는 도(道)는 반드시 한(漢)·송(宋)의 경계를 나눌 것도 없고, 정현(鄭玄, 127~200)·왕숙(王肅, 195~256)과 정자(程子, 1033~1107)·주자(朱子, 1130~1200)의 장단점을 비교할 필요도 없으며, 주희(朱熹)·육

25) 이러한 부분은 英祖 때부터 나타난다. 그리고 正祖는 朱子學을 正學으로 삼았지만, 朱子와 다른 해석도 수용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정옥자, 『정조의 문예사상과 규장각』, 효형출판, 2001과 김문식, 『조선후기 경학사상사』, 일조각, 1996과 김문식, 『정조의 경학과 주자학』, 문헌과해석사, 2001과 서근식, 「조선후기 학계와 경기학인」, 『東洋文化研究』 제5집,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10.05, 105-124쪽을 참조.

26) 서근식, 「조선후기 실학파의 『주역』해석 방법론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을 참조.

27) 조선후기에는 김정희뿐만 아니라 다른 학자들도 한송절충론에 빠져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정혜린, 「김정희의 청대 한송절충론 수용 연구」, 『한국문화』 제31집, 서울대학교한국문화연구소, 2003.06, 199-228쪽과 최식, 「19세기 '실사구시'의 다양한 층위와 학적 지향」, 『韓國實學研究』 제19호, 민창사, 2010.06, 255-286을 참조.

구연(陸九淵, 1139~1192)과 설선(薛瑄, 1389~1464)·왕수인(王守仁, 1472~1528)의 문호를 다룰 필요도 없다. 다만 심기(心氣)를 고르게 하여 널리 배우고[博學] 독실하게 실천하면서[篤行] ‘실제 있는 일에서 옳음을 구한다.[實事求是]’라는 한마디 말을 기본으로 삼아서 이것을 실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²⁸⁾

추사는 여기서 한(漢)나라의 훈고학(訓詁學)과 송(宋)나라의 의리학(義理學)을 수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추사가 한송절충론을 내세운 것은 연경(燕京)에 자제군관(子弟軍官)으로 다녀온 이후에 보다 구체화되었다. 추사는 연경에 다녀온 후에도 청(淸)나라 학자들과 교류가 매우 활발하였다. 청나라에서는 추사가 존경에 마지않던 옹방강(翁方綱, 1733~1818)과 완원(阮元, 1764~1849)이 한송절충론을 주장하고 있었다.²⁹⁾ 추사는 이들의 영향을 받아 한송절충론을 주장하게 된다.³⁰⁾ 그러나 추사는 위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명(明)나라의 양명학은 긍정할 필요가 없었다. 즉, 설선이나 왕수인의 사상은 긍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는 당시 조선의 상황이 양명학에 대해서는 배척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또, 추사는 『실사구시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28) 『阮堂先生全集』卷1「說」〈實事求是說〉26左. “故爲學之道 不必分漢宋之界 不必較鄭王程朱之短長 不必爭朱陸薛王之門戶. 但平心靜氣 博學篤行 專主實事求是 一語行之可矣.”

29) 이선경, 「완당 김정희의 실사구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24~32쪽과 김인규, 「추사 김정희의 학문관」, 『온지논총』 제11집, 온지학회, 2004.12, 128~132쪽을 참조.

30) 秋史의 다른 여러 號들 가운데 ‘阮堂’이라는 號가 있는데, 그의 『全集』이나 저술이름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號이다. 이 號가 바로 阮元에게서 따온 號라는 점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학자들은 한(漢)나라 유학자들이 정밀하게 훈고(訓詁)를 탐구한 것을 높이는데, 이것은 참으로 옳은 일이다. 다만 성현의 도(道)에 비유하면 커다란 집과 같으니, 주인은 항상 당실(堂室)에 거처하는데 당실은 문경(門逕)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다. 훈고라는 것은 바로 문경이다. 일생 동안 문경사이에서만 분주하면서 방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인(下人)이 될 뿐이다. 그러므로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정밀하게 훈고에 열중해야 한다는 것은 그 당실로 잘못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는 말이요, 훈고의 일을 끝마치라는 말은 아니다. 한나라 사람들이 당실에 대하여 말하지 않은 것은 그때는 문경이 잘못되지 않았으므로 당실로 잘못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³¹⁾

이 부분은 완원의 「의국사유림전서(擬國史儒林傳序)」의 결론부분과 같다고 하는데, 같은 의미에서 이 말은 사용한 것은 추사가 옹방강과 완원의 영향을 받아 한송절충론을 주장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추사는 한학(漢學)의 훈고(訓詁)를 중요시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우리가 들어가고 싶은 곳은 당실인데 그 당실은 문경을 거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문경이 바로 훈고가 되는 것이다. 훈고를 거치지 않고서는 그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문경 즉 훈고를 거쳐야만 한다. 송대(宋代)의 의리학도 마찬가지이다. 훈고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가운데 담긴 의리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문장의 훈고를 강조한다는 것은 그것이 실제에는 어떠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실제 어떠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바로 실사구시인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바로 고증학(考證學)의 방법론이다. 그러나 추사의

31) 『阮堂先生全集』 卷1 「說」 <實事求是說> 26右~左. “學者尊漢儒 精求訓詁 此誠是也. 但聖賢之道 譬若甲第大宅 主者所居 恒在堂室 堂室非門逕 不能入也. 訓詁者門逕也. 一生奔走于門逕之間 不求升堂入室 是廝僕矣. 故爲學 必精求訓詁者 爲其不誤于堂室 非謂訓詁畢乃事也. 漢人不甚論堂室者 因彼時門逕不誤 堂室自不誤也.”

주장은 옹방강이나 완원과 다른 한송절충론을 주장하고 있다. 추사가 주장한 한송절충론에서 옹방강·완원의 한송절충론과 다른 점은 양명학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옹방강이나 완원은 한대(漢代)의 훈고와 송대(宋代)의 의리를 모두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에 있었다. 그러나 추사의 한송절충론은 의리 가운데 양명학은 긍정하지 않고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다.

실사구시는 실제 일에 있어서 옳음을 구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에 대해 다시 고찰해 봄으로써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였다. 여기서 안외순이 실사(實事)와 구시(求是)라고 본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밝혔고, 실사구시를 하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노장사상과 불교사상과 같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실사구시가 한송절충론과 관련된다는 것도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청(淸)나라의 고증학의 입장과 같은 것이다. 여기서 추사는 중국의 한송절충론과 다르게 양명학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다.

Ⅲ. 실사구시를 통한 학문관

실사구시는 ‘실제 일에서 옳음을 구한다.’라는 뜻이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실제 일에서 옳음을 구할 수 있는가? 추사는 『논어(論語)』의 하학·상달(下學·上達)의 방법³²⁾과 『중용(中庸)』의 박학·독행(博學·獨行)

32) 『論語』「憲問」37章. “子貢曰 何爲其莫知子也. 子曰 不怨天 不尤人 下學而上達 知我者其天乎.”

學·篤行³³⁾의 방법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것이 바로 실제 일에서 옳음을 구한다라는 뜻을 말한 것이다. 이선경은 이러한 사실을 언어문자와 역학관(易學觀), 예제(禮制)와 정명(正名), 선(禪)·교(教)의 방편론의 문제로 풀어내고 있다.³⁴⁾ 이러한 서술은 추사의 사상을 실사구시에 근거한 방법론으로 보고 그 대상을 추사의 학문전체가 된다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하학과 상달은 어떤 일에 있어서 먼저 객관적으로 시비판단을 하는 것이 하학이고 그것을 통해 어떤 이치를 알아가는 것이 상달이다. 한대(漢代) 훈고학이 하학이라면 송대(宋代) 의리학은 상달이 되는 것이다. 즉, 모든 일은 먼저 하학의 단계를 거쳐야만 상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하학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달로 넘어간다면 이는 공허한 일이 될 뿐이지 진정한 학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추사에게는 넓은 지식이 중요하게[博學] 생각되며, 모든 학문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만약 하학을 거치지 않고 상달로 넘어갔다면 어떻게 될까? 즉, 훈고를 거치지 않고 의리로 바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훈고를 거치지 않으면 그 말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지 못하고 그 말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엉뚱한 의미로 파악될 수 있다. 즉, 그 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그것의 의미에 대해 밝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하학의 단계 즉 훈고를 먼저 거치고 상달의 단계 즉 의미를 파악해야만 한다.

33) 『中庸』 20章. “博學之 審問之 慎思之 明辨之 篤行之. 有弗學 學之 弗能 弗措也 有弗問 問之 弗知 弗措也 有弗思 思之 弗得 弗措也 有弗辨 辨之 弗明 弗措也 有弗行 行之 弗篤 弗措也. 人一能之 己百之 人十能之 己千之.”

34) 이선경, 「완당 김정희의 실사구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33~73쪽과 이선경, 「추사 김정희 사상의 실사구시적 특성」, 『한국철학논집』 제19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006.09, 374~381쪽을 참조.

이러한 방법론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추사는 “널리 배우고[博學] 독실하게 실천하면서[篤行] ‘실제 있는 일에서 옳음을 구한다.[實事求是]”³⁵⁾ 라고 하였다. 박학하고 독행하면서 실사구시를 이룰 수 있다고 한다. 널리 안다는 것[博學]은 것은 추사의 학문적 성향에서도 알 수 있다. 추사의 학문성향은 언어·문자, 예제(禮制), 불교, 시화(詩畫), 서예 등 다방면에 걸쳐 관심을 가졌으며 또 이러한 분야에서 뛰어났다. 추사가 이토록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또 뛰어났던 이유는 널리 배워서[博學] 안다는 것에 충실했기 때문이다.³⁶⁾

그러면 독실하게 실천한다[篤行]는 것에 대해서는 추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추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현(聖賢)의 도는 몸소 실천하면서 공론(空論)을 숭상하지 않는 데에 있다. 진실한 것이면 구하고 헛된 것이면 의거하지 말아야지, 만일 그윽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이것을 찾거나 텅 비고 광활한 곳에서 이것을 방치한다면 시비를 분별(分辨)하지 못하여 본의(本意)를 완전히 잃게 될 것이다.³⁷⁾

위의 인용문은 공론이나 헛된 것을 추구하면 시비도 판단할 수 없고 그 본의조차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것은

35) 『阮堂先生全集』卷1 「說」 <實事求是說> 26左. “博學篤行 專主實事求是 一語行之可矣.”

36) 추사가 얼마나 博學했는가는 그의 詩를 보면 잘 드러나 있다. 추사의 詩는 어렵기로 소문이 났을 정도이다. 국내에서 詩에 대해서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홍찬유가 감수한 『추사 김정희 시 전집』을 보면 秋史의 詩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 秋史가 博學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자세한 것은 정후수 역/홍찬유 감수, 『추사 김정희 시 전집』, 풀빛, 1999를 참조.

37) 『阮堂先生全集』卷1 「說」 <實事求是說> 26左. “夫聖賢之道 在于躬行 不尙空論 實者當求 虛者無據. 若索之杳冥之中 放乎空闊之際 是非莫辨 本意全失矣.”

송대(宋代) 의리학에 있어서도 그렇다. 여기서 말하는 의리가 만약 공소(空疏)한 것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러한 의리는 버려야지 그것을 추구한다면 실사구시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추사는 한송절충론을 주장한 것이다. 여기서 한송절충론은 결과적으로 고증학으로 나가게 된다. 고증학은 의리학에서 주장하는 것이 과연 훈고에도 맞는 것인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실사구시는 필연적으로 고증학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위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추사의 한송절충론은 결과적으로 의리 가운데 명대(明代) 양명학을 제외하고 진행한 한송절충론이었다.

그러면 추사는 송대의 격물치지(格物致知)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격물치지는 정이(程頤)와 주희(朱熹)가 강조한 것이다. 격물치지를 어떻게 보느냐는 송대의 학문을 어떻게 보는가와 연결된다. 추사는 격물치지에 대해 주희와는 다른 해석을 한다. 추사는 「격물변(格物辨)」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격물(格物)이란 사물(事物)에 이르러 그친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다. 대체로 가·국·천하(家·國·天下)에서 오륜(五倫)의 일은 몸소 친히 그곳에 이르러 실천하여 지선(至善)에 그쳐야 하는 것이니, ‘물을 이르게 한다[格物].’와 ‘지선에 그치다[止至善].’, ‘그칠 줄을 안다[知止].’, ‘인(仁)에 그치다[止于仁].’, ‘경(敬)에 그치다[止于敬].’ 등의 일이 모두 한 가지 뜻이요, 두 가지 해석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현(聖賢)의 도(道)는 모두가 실천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모두 실사구시(實事求是)의 뜻일 뿐이다.³⁸⁾

38) 『阮堂先生全集』 卷1 「辨」 <格物辨> 39左~40右. “故曰格物者 至止于事物之謂也. 凡家國天下五倫之事 無不當以身親至其處而履之 以止于至善也 格物與止至善知止于仁敬等事 皆是一義 非有二解也. 聖賢之道 無非實踐 而皆實事求是之義也.”

추사는 정이와 주희와는 다른 격물치지를 주장한다.³⁹⁾ 추사의 격물치지는 송학(宋學)에서처럼 훈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격물치지를 말한 반면에 추사는 반드시 훈고를 거쳐야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훈고를 거쳐 의리를 주장한다는 고증학적 방법론과 관련되며 실사구시와 합치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현의 도는 모두 ‘실천’하는 것이라고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인용문에서도 격물을 “몸소 친히 그곳에 이르러 실천하여”라고 실천을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추사의 격물치지는 그 의미가 ‘실천’에 있고, 이것은 결국에는 실사구시와 통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추사는 독실하게 실천한다[篤行]를 강조하고 그것이 바로 ‘실사구시’임을 강조한 것이다. 추사의 학문이 실사구시로 확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추사의 학문관이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추사는 실사구시라는 학문방법론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하학·상달과 박학·독행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것은 먼저 훈고를 한 후에 의리를 알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훈고를 하학이라고 보면 의리는 상달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격물변」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격물의 의미를 실천으로 보고 그것이 바로

39) 이선경은 “阮堂은 格物致知의 기초로서 實相과 부합하는 文字의 훈고를 중요시한다. 그의 格物論은 진리탐구에 있어서 실상과 言表된 문자를 대응시켜 본다는 점에서 宋學의 格物致知와 구별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필자도 이러한 주장에 어느 정도 동조한다. 이선경, 「완당 김정희의 실사구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17쪽의 주)24를 참조. 秋史의 格物致知는 宋學에서 말하는 格物致知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송학에서는 格物致知를 訓詁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언급하는 반면 秋史의 格物致知는 訓詁를 거쳐 의미를 주장하는 考證學의 성격이 강하다. 즉, 秋史의 格物致知는 實事求是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실사구시’가 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추사의 학문이 다음 장에서 살펴 볼 고증학과 깊게 연관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통해 추사의 학문은 전체적으로 실사구시의 방법론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IV. 학문방법으로서의 고증학(考證學)

추사의 한송절충론은 고증학⁴⁰⁾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추사의 고증학은 경제론과 연결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⁴¹⁾ 추사는 실사구시 정신으로 수차례에 걸쳐 북한산에 올라 그동안 무학대사(無學大師)의 비석(碑石)로 알려진 비석이 ‘북한산순수비(北漢山巡狩碑)’였음을 증명하기도 하였다. 이 문제는 좀 더 자세하게 살

40) 이선경은 기존의 연구에서 실사구시를 정의한 시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1. 실사구시를 고증학으로 보는 경우 : 금장태, 이을호, 2. 실사구시를 고증 + 실제성의 추구로 보는 경우 : 윤사순, 3. 실사구시를 고증 + 실천궁행으로 보는 경우 : 남상락, 4. 실사구시를 고증 + 윤리도덕으로 보는 경우 : 김길환. 필자는 실사구시의 학문방법을 고증학으로 본 1번 주장에 동의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선경, 「완당 김정희의 실사구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21쪽의 주)30을 참조.

41) 안외순은 “추사의 경우 고증학 자체에는 성공적이었는지 몰라도 고증학을 경제학과 연결시키는 점에 있어서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 필자(안외순)의 견해이다. 필자(안외순)가 검토한 바, 추사는 고증학을 경제학, 곧 政論이나 經綸論과 거의 연결시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였는데, 필자도 안외순의 견해에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고증학을 반드시 政論이나 經綸論과 연결시켜야 되는 것은 아니다. 고증학 자체로서도 충분히 학문방법론이 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안외순, 「추사 김정희와 실학사상의 관계에 관한 재고찰」 『동양고전연구』 제21집, 동양고전학회, 2004, 12, 76쪽을 참조.

펴보도록 하고, 먼저 그의 고증학적 입장에 대해 살펴보자.

추사가 한대(漢代) 훈고학에 관심을 가졌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왜 훈고학에 관심을 가졌던 것인가? 추사는 훈고학에 관심이 있었으며 특히 정현(鄭玄)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낸다. 이러한 사실은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1762~1836)에게 준 편지에서 잘 나타나 있다.

대저 정주(鄭註)가 의심나는 곳이 매우 많지만 이는 모두 사설(師說)이요 가법(家法)입니다. ... 뒷사람이 정현(鄭玄)을 반박하는 까닭은 자기의 한 가지 반 토막에 지나지 않는 식견을 가지고서 어찌다 새롭고 기특하여 기뻐할 만한 곳을 발견하게 되면 의연히 떨치고 일어나 공격하여 있는 힘을 남기지 않은 한 것입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자기가 공격한 그 자체는 특별히 사설(師說)도 없고 또 가법(家法)도 아닌 것입니다. 왕숙(王肅) 같은 무리들이 험난(詰難)한 것은 뜻을 두고 이 설을 세워 스스로 독특함을 자랑한 것이며, 경(經)의 뜻이 날로 부스러지고 없어지는 데에 이르러서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또한 뒷사람들이 크게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⁴²⁾

추사는 글을 보다 보면 정현의 주석은 의심나는 곳이 많아서 사실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모두 스승의 말이고 집안에서 전해 내려오는 말이라고 하였다. 의심스럽다고 하여 정현의 주석은 믿을 수가 없으므로 삭제해야 하는가? 추사는 아니라고 대답한다. 여기서 우리는 추사가 사설(師說)과 가법(家法)을 매우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 추사는 사설(師說)과 가법(家法)을 존중하는 것을 ‘존고(存古)정신’이므로 존중해야 한다고

42) 『阮堂先生全集』卷4「書牘」〈與丁茶山 若鏞〉1左. “大抵鄭注之可疑處甚多 然此皆師說也家法也. ... 後人所以駁鄭者 以己之一知半解 偶有新奇可喜處 毅然奮起而攻之 不遺餘力. 反以思之 己之所攻者 別無師說又非家法也. 如王肅輩之所難 無非有意立異 以自銜奇 至如經旨之日以剝喪者 全不顧念. 此又後人之大戒也.”

한다.⁴³⁾ 만약 정현의 학설을 비판하여 삭제한다면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중요한 학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정현은 훌륭한 훈고학자이고 스승에게서 들은 것이 많은 학자이다. 이러한 학자의 학설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학설을 따른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학설은 근거가 될 만한 사설(師說)도 없으며 그렇다고 집안에서 내려오는 가법(家法)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러한 근거 없는 학설을 따르다 보면 나중에는 엉뚱한 주장을 가지고 그 주장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현과 같은 한(漢)나라 학자가 스승에게 들은 학설이나 집안에서 내려온 가법(家法)은 의심스러울 지라도 믿고 따라야 한다고 추사는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것이 바로 ‘존고(存古)정신’이고 실사구시라고 추사는 생각하였다. 그러나 다산은 추사와 같이 존고정신에 입각하여 경전(經典)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추사는 다산의 입장에 대해 비판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현의 경우처럼 사설(師說)과 가법(家法)이 있으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가? 이에 대해 추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근래로 명유(名儒)들이 무리지어 나와 옛 학문이 성하고 밝아져서 이천 년 이래 떨어진 실마리를 다시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마다 한 가지 설(說)이 있고 사람마다 한 의(義)가 있어 문(門)이나 호(戶)마다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말하는 것도 오늘날 같이 심한 적은 없었습니다.⁴⁴⁾

43) 이선경, 「완당 김정희의 실사구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33~36쪽을 참조.

44) 『阮堂先生全集』卷5 <書牘> <與李月汀 瑋煜> 1左. “近日以來 名儒輩出 古學昌明 二千年來 隆緒 可復整理. 然家有一說 人是一義 門門戶戶 是是非非 又無如近日之甚.”

많은 명유(名儒)들이 나와 갖가지 학설들을 말하는 있는데 이는 모두 사설(師說) 가법(家法)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학설들을 모두 인정한다면 시비를 가리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나 사설(師說)과 가법(家法)을 존중해야 한다는 ‘존고(存古)정신’을 내세우는 추사로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추사는 근래의 명유(名儒)들이 주장하는 학설을 물리치고 한(漢)나라의 훈고학만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근래의 학자들이 주장한 것을 믿을 수 없으므로 정현의 학설만을 따르려고 하였다.⁴⁵⁾ 즉, 정현의 훈고학적 주석을 신뢰한 것이다. 추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육경(六經)의 전(傳)·주(注)는 마땅히 육경의 정문(正文)과 함께 천고에 남아야 하며, 『위공(僞孔)』⁴⁶⁾·두예(杜預, 222~284)·왕필(王弼, 226~249)·하안(何晏, 159~249)에 있어서도 다 폐기하지 못할 것이 사온데 하물며 정의(鄭義)에 있어서이겠습니까?⁴⁷⁾

추사는 다산에게 보낸 편지에서 정현을 무한히 존중하고 있다. 왜냐하면 추사가 보기에 그의 학설이 훈고학적으로 가장 뛰어난 학설이고 스승인 마융(馬融, 79~166)에게서 들은 것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45) 이러한 방법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는 학자들 마다 다르다. 즉, 당시 지식인들의 입장 차이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6) 『僞孔傳』을 가리킨다. 한(漢)나라 공안국(孔安國)이 조명(詔命)을 받들어 『古文尙書傳』을 만들었는데 이때에 무고사건(巫蠱事件)이 일어나서 미쳐 현상하지 못하고 죽었다. 진(晉)나라 때에 와서야 그 글이 다시 나오니 후대 유학자들은 진(晉)나라 사람의 위조한 것이라고 의심하였다. 그래서 이름을 『僞孔傳』이라고 붙인 것이다.

47) 『阮堂先生全集』卷4 「書牘」 <與丁茶山 若鏞> 2右. “竊謂六經傳注 當與六經正文 共垂千古 印僞孔杜預王弼何晏 皆有不能廢者 况鄭義乎.”

두예, 왕필, 하안의 주석과 심지어 『위공전(僞孔傳)』까지도 모두 폐기할 수가 없었는데 하물며 정현의 주석이야 어떻겠느냐고 한 것이다. 여기서 추사는 정현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하학 즉 훈고를 통한 상달 즉 의미해석에서 하학이 잘못되면 의리도 보장 받을 수 없으므로 훈고학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훈고학 가운데 정현을 보다 중요한 인물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추사가 실사구시 정신으로 무장되었음을 보여준다. 또, 추사는 이와 같은 것을 고증학이라고 생각했다.

추사는 또한 금석학자로서도 이름이 높다.⁴⁸⁾ 추사의 금석학은 그의 『문집』 가운데 「진흥이비고(眞興二碑攷)」에 담겨져 있다. 추사는 왜 수차례에 걸쳐 북한산에 올라 그동안 무학대사(無學大師)비로 알려진 비석이 ‘북한 산순수비’였음을 증명할 수 있었던 것일까? 다른 사람들이 발견해 낸 금석자료나 기존의 금석문을 가지고 연구를 해도 금석학자로서의 이름은 남길 수 있었다. 실제 추사 이전의 금석학에 관심이 있었던 학자들은 그렇게 하였다.⁴⁹⁾ 그러나 추사는 실제 있는 일에서 옳음을 구한다.[實事求

48) 금석학자로서의 김정희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논한 것이 있다. 특히 「眞興二碑攷」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논하고 있다. 「眞興二碑攷」는 「眞興二碑攷」에 대해 최근에 연구한 최영성, 「秋史 金石學의 再照明 : 史的 '考證'의 문제를 主眼目으로」, 『동양고전연구』 제29집, 동양고전학회, 2007.12, 227-272쪽을 참조. 그리고 한국금석학의 발전사에 대한 것은 최영성, 「韓國金石學의 성립과 발전 : 研究士의 整理」, 『동양고전연구』 제26집, 동양고전학회, 2007.03, 381-412쪽을 참조. 이 두 편의 논문은 모두 2014년에 최영성이 편찬한 『한국의 금석학 연구』, 이른 아침에 재수록되었다.

49) 秋史 이전의 유명한 金石學者로는 英祖 때의 金在魯(1682~1759)와 正祖 때의 洪良浩(1724~1802)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金石文의 편집에만 치우쳐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최영성, 「韓國金石學의 성립과 발전 : 研究士의 整理」, 『동양고전연구』 제26집, 동양고전학회, 2007.03, 393-400쪽을 참조하기 바란다.

是]를 학문방법론으로 삼았기 때문에 직접 발로 뛰어서 그 비석이 무학대사의 비석이 아니라 ‘북한산순수비(北漢山巡狩碑)’임을 증명한 것이다. 추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비석(碑石)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요승(妖僧) 무학(無學)이 잘못 찾아 여기에 이르렀다는 비[妖僧無學枉尋到此之碑]”라고 잘못 일컬어져왔다. 그런데 가경(嘉慶)⁵⁰⁾ 병자(丙子)년 가을에 내가 김군 경연(金君敬淵)과 함께 승가사(僧伽寺)에서 노닐 다가 이 비(碑)를 보게 되었다. … 그래서 마침내 이를 진흥왕(眞興王)의 고비(古碑)로 단정하니, 1천2백년이 지난 고적(古蹟)이 하루아침에 크게 밝혀져서 무학비(無學碑)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설이 변파(辨破)되었다.⁵¹⁾

진흥왕의 북한산순수비를 발견하는 순간을 이렇게 적고 있다. 여기에서도 보면 승가사에서 노닐다가 이 비석을 발견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북한산순수비가 세워진 것으로 따지자면 1,200년의 시간동안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무학대사의 비석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추사는 이를 다시 고증하여 진흥왕의 북한산순수비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추사가 진흥왕의 순수비를 발견한 것은 실사구시 정신에 딱 들어맞는 일이다. 즉, 실제 있는 일에서 옳음을 구한다는 정신에 들어맞는 일이다. 이것은 고증학에서 훈고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발로 뛰어서 기록한 것이다.

50) 淸나라 5번째 황제이름, 帝位年度는 1796년부터 1820년까지이다.

51) 『阮堂先生全集』 卷1 「攷」 <眞興二碑攷> 16左~17右. “此碑人無知者 誤稱妖僧無學枉尋到此之碑. 嘉慶丙子秋 余與金君敬淵 游僧伽寺 仍觀此碑. … 遂定爲眞興古碑 千二百年古蹟 一朝大明 辨破無學碑弔詭之說.”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추사체(秋史體)이다. 추사체과 고증학이 무슨 관계가 있는냐고 질문할지 모르지만 『예당금석과안록(禮堂金石過眼錄)』이라는 금석학적 책을 펴내면서 추사는 그의 서체(書體)인 추사체를 발전시켜 나간다. 즉, 『예당금석과안록』은 금석학적으로 대단한 발견일 뿐만 아니라 추사체의 발전사에서도 중요한 책이다. 추사는 『예당금석과안록』을 통해 고증학적 해안이 점점 발전해 나갈 수 있었고, 추사체 역시 점점 자리가 잡혀 갔다. 그리고 제주도 유배당시 추사체를 완성하게 된다. 추사의 고증학의 발전과 더불어 추사체 역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학문방법으로서 추사는 고증학을 내세운다. 고증학에서 추사는 한(漢)나라의 훈고학을 중시했고 그 가운데 정현의 주석에 대해 신뢰를 보였다. 또, 고증학의 방법으로서 추사는 금석학을 내세우는데 그 가운데 「진흥이비고」에서 북한산순수비를 발견하게 되는 과정을 소개 하고 있다. 「진흥이비고」를 자세히 보면 본래는 무학대사의 비석이었다가 추사의 손을 거쳐 진흥왕의 순수비로 되었다는 기록되어 있다. 이는 실제 있는 일에서 옳음을 구한다[實事求是] 정신과 꼭 들어맞는 것이고, 고증학에서 훈고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발로 뛰어서 기록한 것이다.

V. 맺음말

추사의 실사구시를 학문방법론의 입장에서 살펴보았다. 추사의 학문방법론은 실제 있는 일에서 옳음을 구한다[實事求是]라는 표현을 통해 나타난다. 이러한 학문방법론은 한송절충론과 고증학을 통해 살펴보았다.

실사구시는 실제 일에 있어서 옳음을 구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에 대해 다시 고찰해 봄으로써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였다. 여기서 안외순이 실사(實事)와 구시(求是)라고 본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밝혔고, 실사구시를 하지 않았을 때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노장사상과 불교사상과 같이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실사구시가 한송절충론과 관련된다는 것도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청(淸)나라의 고증학과 같은 것이다. 여기서 추사는 중국의 한송절충론과 다르게 양명학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다.

추사의 학문관이 실사구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추사는 실사구시라는 학문방법론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하학·상달과 박학·독행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것은 먼저 훈고를 한 후에 의리를 알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훈고를 하학이라고 보면 의리는 상달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격물변(格物辨)」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격물의 의미를 실천으로 보고 그것이 바로 ‘실사구시’가 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추사의 학문이 고증학과 깊게 연관됨을 보여주고 있다. 추사의 학문은 전체적으로 실사구시의 방법론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학문방법으로서 추사는 고증학을 내세운다. 고증학에서 추사는 한(漢)나라의 훈고학을 중시했고 그 가운데 정현의 주석에 대해 신뢰를 보였다. 또, 고증학의 방법으로서 추사는 금석학을 내세우는데 그 가운데 「진흥이비고(眞興二碑攷)」에서 북한산순수비를 발견하게 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진흥이비고」를 자세히 보면 본래는 무학대사의 비석이었다가 추사의 손을 거쳐 진흥왕의 순수비로 되었다는 기록되어 있다. 이는 실제 있는 일에서 옳음을 구한다[實事求是] 정신과 꼭 들어맞는 것이고, 고증학에

서 훈고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발로 뛰어서 기록한 것이다.

추사의 '실사구시'는 현재 인구(人口)에 회자(膾炙)되는 말이다. 그러나 실사구시를 명확하게 밝힌 글은 별로 없다. 이 논문을 계기로 보다 활발하게 추사의 실사구시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 김정희, 『완당선생전집』 『(표점·영인)한국문집총간』 301, 민족문화추진회, 2003.
김정희, 『국역 완당전집』(전4책), 솔, 1996~1997.
양득중, 『덕촌집(德村集)』 『(표점·영인)한국문집총간』 180, 민족문화추진회, 1996.
『경서(經書)』,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8.
藤塚隣 著, 藤塚明直 編, 『清朝文化東傳の研究 : 嘉慶・道光學壇と李朝の金阮堂』, 國書刊行會, 昭和50.
최완수, 『김추사연구초(金秋史研究艸)』, 지식산업사, 1976.
김문식, 『조선후기 경학사상사』, 일조각, 1996.
정후수 역, 『추사 김정희 시 전집』, 풀빛, 1999.
임형택, 『실사구시의 한국학』, 창작과비평사, 2000.
정옥자, 『정조의 문예사상과 규장각』, 효형출판, 2001.
김문식, 『정조의 경학과 주자학』, 문헌과해석사, 2001.
유홍준, 『완당평전』(전3책), 학고재, 2002.
한영우 외, 『다시 실학이란 무엇인가』, 푸른역사, 2007.
정후수, 『추사 김정희 논고』, 한성대학교출판부, 2008.
한국철학사연구회 엮음, 『한국실학사상사』, 심산, 2008.
후지즈카 치카시 지음, 후지즈카 아키나오 엮음, 윤철규·이충구·김규선 옮김 『秋史 金正喜 研究 : 清朝文化 東傳의 研究』, 과천문화원, 2009.

- 최영성, 『한국의 금석학 연구』, 이른아침, 2014.
- 이선경, 「완당 김정희의 실사구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 서근식, 「조선후기 실학파의 『주역』 해석 방법론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이우성, 「18세기 서울의 도시적 양상 : 연암일과 - 이용후생학파의 성립배경」 『향토서울』 제17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63.07. 8쪽.
- 정혜린, 「김정희의 청대 한송절충론 수용 연구」 『한국문화』 제31집, 서울대학교한국문화연구소, 2003.06, 199-228쪽
- 신창호, 「추사 김정희의 공부론 - 「인재설」과 「실사구시설」의 인간관과 학문관」 『동양고전연구』 제21집, 동양고전학회, 2004.12, 7-28쪽.
- 안외순, 「추사 김정희와 실학사상의 관계에 관한 재고찰」 『동양고전연구』 제21집, 동양고전학회, 2004.12, 55-86쪽.
- 김인규, 「추사 김정희의 학문관」 『온지논총』 제11집, 온지학회, 2004.12, 125-152쪽.
- 신창호, 「추사 김정희의 '실사구시' 교육관」 『한국교육사학』 제27권 1호, 한국교육사학회, 2005.04, 29-50쪽.
- 이선경, 「추사 김정희 사상의 실사구시적 특성」 『한국철학논집』 제19집, 한국철학사연구회, 2006.09, 361-384쪽.
- 최영성, 「한국금석학의 성립과 발전 : 연구사의 정리」 『동양고전연구』 제26집, 동양고전학회, 2007.03, 381-412쪽.
- 최영성, 「추사 금석학의 재조명 : 사적 '고증'의 문제를 주안목으로」 『동양고전연구』 제29집, 동양고전학회, 2007.12, 227-272쪽.
- 이선경, 「실사구시론의 새로운 지표」 『한국실학사상사』, 심산, 2008, 271-291쪽.
- 서근식, 「조선후기 학계와 경기학인」 『동양문화연구』 제5집,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10.05, 105-124쪽.
- 최 식, 「19세기 '실사구시'의 다양한 층위와 학적 지향」 『한국실학연구』 제19호, 민창사, 2010.06, 255-286쪽.

Abstract

A Re-examination of ChuSa Kim Jeong-hee(秋史 金正喜)'s
「Shishiqiushishuo(實事求是說)」

Seo, Geun-Sik

‘Shishiqiushi(實事求是)’ means looking for what’s right in practical matters. In this paper, this meaning was examined again, and became clear. It was investigated that this ‘Shishiqiushi(實事求是)’ is related to ‘Hansongzhezonglun(漢宋折衷論)’, which is similar to Kaozhengxue(考證學) of Ching(清) Dynasty.

It’s been examined that ChuSa(秋史)'s view of learning was based on ‘Shishiqiushi(實事求是)’. Regarding the matter of how to practice the academic methodology of ‘Shishiqiushi(實事求是)’, ChuSa(秋史) specifically emphasized Xiaxue(下學)·Sangda(上達) and Boxue(博學)·Duxing(篤行). It shows that ChuSa(秋史)'s studies were deeply related to the study of ancient documents.

As for the academic methodology, ChuSa(秋史) insisted on Kaozhengxue(考證學). He attached importance to exegetic studies of Han(漢) Dynasty, among which, he paid credit to ZhengXuan(鄭玄)'s annotation. In addition, with regard to the methodology of Kaozhengxue(考證學), ChuSa(秋史) advocated epigraphy, and among which, the discovering process of the monument commemorating a king’s tour in Bukhan Mountain in 「Zhenxingerbeikao(真興二碑攷)」. When 「Zhenxingerbeikao(真興二碑攷)」 was closely investigated, it’s been found to have been recorded that it used to be the Buddhist Great Master Muhak’s tombstone, but came to be recorded as the monument commemorating King Jinheung’s tour through ChuSa(秋史)'s hands. It perfectly corresponds to the spirit of seeking righteousness in practical matters[實事求是].

Key Word

ChuSa Kim Jeong-hee(秋史 金正喜), Shishiqiushi(實事求是), Kaozhengxue(考證學), Chaoxian houqi shixue(朝鮮後期 實學), Hansongzhezonglun(漢宋折衷論), Xunguxue(訓詁學)

- 논문투고일 : 2016.6.28. 심사완료일 : 2016.8.8. 게재결정일 : 2016.8.17.